<h1>나 혼자만 레벨업-91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o7ef378374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1화</p>  
<p>'소환수?'</p>  
<p>차해인은 그림자 병사들을 보고 가장 먼저 소환수를 떠올렸다.</p>  
<p>하지만 소환수라고 하기엔 그 숫자가 너무 많았다.</p>  
<p>소환 마법이 특기인 마법계열 헌터들이 다룰 수 있는 소환수의 숫자는 끽해야 하나둘.</p>  
<p>둘만 다뤄도 대접이 달라지며 셋을 다루는 소환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저 숫자는 뭐란 말인가?</p>  
<p>'이게 말이 돼?'</p>  
<p>한 사람이 불러낸 소환수가 100여 마리를 넘어서고 있었다.</p>  
<p>그것도 소환하는 데 오래 걸리지가 않았다.</p>  
<p>수십의 소환수를 한꺼번에 불러냈다.</p>  
<p>'내 눈으로 직접 본게 아니라면 믿기 힘들었을 거야.'</p>  
<p>한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헌터인 그녀가 다른 헌터의 능력을 보고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'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'</p>  
<p>그녀의 시선이 그림자 병사들을 지나쳐 공격대를 향했다.</p>  
<p>다들 안색이 좋지 않았다.</p>  
<p>몇몇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기까지 했다.</p>  
<p>성진우라는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,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일단은 그를 도와 한시바삐 하이오크들을 정리해야 했다.</p>  
<p>생각은 간단히, 행동은 빠르게.</p>  
<p>차해인은 무기를 양손으로 고쳐쥐고서 하이오크들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다.</p>  
<p>그러나 그때.</p>  
<p>성진우와 눈이 마주쳤다.</p>  
<p>그의 눈빛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.</p>  
<p>필요없다고.</p>  
<p>방해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고.</p>  
<p>차해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.</p>  
<p>'어째서...?'</p>  
<p>성진우가 많은 소환수를 다룰 수 있다는 건 알겠다.</p>  
<p>하지만 아직 비슷한 숫자의 하이오크들과 필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보스가 남아 있었다.</p>  
<p>저리 많은 소환수들을 불러냈고, 또 유지하고 있으니 이미 마력이 바닥났거나 슬슬 바닥나 가고 있을 텐데.</p>  
<p>'혼자서 뭘 어쩌려는 걸까?'</p>  
<p>의아했지만 결국 차해인은 순순히 무기를 늘어뜨렸다.</p>  
<p>그 무기가 채굴팀에서 빌린 곡괭이여서만은 아니었다.</p>  
<p>저 남자, 성진우라는 헌터가 하이오크들을 상대로 무엇을 하려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졌다.</p>  
<p>기대감.</p>  
<p>이성적인 판단과 기대감의 대결에서 기대감이 압승을 거뒀다.</p>  
<p>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.</p>  
<p>'휴, 다행이다.'</p>  
<p>진우는 차해인의 반응을 보고서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이제부터가 진짜인데 훼방꾼이 있어서야 안 되지.</p>  
<p>혼자 마수들을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보스에게 공격당하는 손기훈을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방치했다.</p>  
<p>'여력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 함께 싸우려 들 사람이었으니까.'</p>  
<p>그래서 손기훈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움직였다.</p>  
<p>당장 달려 나가 빌어먹을 주술사 놈의 머리를 날려 버리고 싶었던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말이다.</p>  
<p>바로 이 순간을 위해.</p>  
<p>'역시 감이 좋은 여자야.'</p>  
<p>차해인이 눈치가 빨라서 다행이었다.</p>  
<p>언성을 높일 필요 없이 알아서 물러나 줬으니까.</p>  
<p>진우가 웃으며 돌아섰다.</p>  
<p>"그림자들!"</p>  
<p>내부를 쩌렁쩌렁 울리는 진우의 외침에 그림자들이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일제히 전투태세를 갖추었다.</p>  
<p>착!</p>  
<p>짧은 순간 정적이 내리 앉았다.</p>  
<p>정적을 깨부순 것은 진우가 하이오크 주술사를 가리키며 던진 한마디였다.</p>  
<p>"가라."</p>  
<p>그러자 일백을 넘어선 그림자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이오크 전사 무리를 향해 돌격을 시작했다.</p>  
<p>두두두두두-!</p>  
<p>병사들의 돌진에 땅이, 동굴이,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쉼 없이 흔들렸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우진철이 헐레벌떡 뛰어왔다.</p>  
<p>"헉, 헉, 헉."</p>  
<p>어찌나 뛰었는지 입에 단내가 났다.</p>  
<p>잠시 숨을 고르고 상체를 일으키니 입구 근처에 서 있는 짧은 머리의 여성이 시야에 들어왔다.</p>  
<p>누군지는 한눈에 알아봤다.</p>  
<p>'차해인...'</p>  
<p>저만한 기운을 품은 여성 헌터가 달리 어디 있을까?</p>  
<p>'그런데 왜 가만히 있지?'</p>  
<p>우진철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그녀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옆으로 다가갔다.</p>  
<p>그러자 안의 상황이 훤히 보였다.</p>  
<p>"이, 이게 대체...?"</p>  
<p>흑색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하이오크라는 강한 마수들을 일방적으로 도륙하고 있었다.</p>  
<p>"크, 크아아악!"</p>  
<p>"키악!"</p>  
<p>"크에에엑!"</p>  
<p>하이오크들이 내지르는 비명으로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다.</p>  
<p>사람의 형상을 한 병사들만 있다면 좀 덜 놀랐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한데 저기 저 무식하게 큰 데다 연기까지 올라오는 검은 곰들과 흑빛 갑주를 걸친 하이오크들은 뭐란 말인가?</p>  
<p>"오랜만이에요, 우진철 과장님."</p>  
<p>"아, 예. 오랜만입니다. 그런데 저것들은 다 뭡니까? 마수 같지는 않은데..."</p>  
<p>"저 남자가 불러낸 소환수예요."</p>  
<p>우진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차해인은 진우를 가리켰다.</p>  
<p>우진철은 선글라스를 벗고 병사들의 중심에 서 있는 진우를 보았다.</p>  
<p>그는 단검 두 자루를 쥔 채 최전선에서 하이오크들의 진형을 붕괴시키고 있었다.</p>  
<p>'어떻게 봐도 최상급의 전투계열 헌터가 아닌가?'</p>  
<p>그런데 소환 마법까지 쓸 수 있다고?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그의 입술이 움직이자 또 수십의 소환수들이 바닥에서 올라왔다.</p>  
<p>"맙소사!"</p>  
<p>우진철의 입이 쩍 벌어졌다.</p>  
<p>대체 소환수를 몇 마리나 부릴 수 있단 말인가?</p>  
<p>'이게 성진우 헌터의 능력...'</p>  
<p>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.</p>  
<p>고건희 협회장은 이런 성진우 헌터의 실력을 일찍이 알아보셨던 걸까?</p>  
<p>그렇다면 성진우 헌터에 대한 그분의 높은 관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한참 동안 진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차해인이 뒤늦게 우진철을 돌아보며 물었다.</p>  
<p>"그런데 우 과장님이 여기 어떻게...? 벌써 감시과에 연락이 갔던 건가요?"</p>  
<p>차해인의 물음에 우진철은 놀란 감정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대답했다.</p>  
<p>"그건 아닙니다.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다 여기 게이트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해 공격대를 피신시키려고..."</p>  
<p>말을 이어 나가던 우진철의 고개가 다시 진우를 향했다.</p>  
<p>"한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군요."</p>  
<p>처음으로 성진우 헌터의 실력을 보았다.</p>  
<p>그가 혼자 힘으로 A급 던전을 클리어하고 있는 광경을.</p>  
<p>거기엔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을 듯했다.</p>  
<p>"네.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."</p>  
<p>차해인 또한 동의했다.</p>  
<p>그의 싸움엔 S급인 자신조차 끼어들 만한 틈이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"저 남자를 아시나요?"</p>  
<p>차해인이 물었다.</p>  
<p>우진철은 성진우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다.</p>  
<p>또 그는 성진우의 정보를 차단한 협회의 일원이기도 했다.</p>  
<p>'어쩌면 우진철은 저 남자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?'</p>  
<p>예상은 들어 맞았다.</p>  
<p>"조금은 압니다."</p>  
<p>"저 사람... 대체 정체가 뭔가요?"</p>  
<p>우진철은 다시 선글라스를 쓰며 대답했다.</p>  
<p>"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."</p>  
<p>\*\*\*</p>  
<p>주술사는 분노했다.</p>  
<p>이곳에서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명령만이 들려왔다.</p>  
<p>-인간들을 사냥하라!</p>  
<p>하나 지금 이 꼴은 무엇인가?</p>  
<p>겨우 인간 하나에게 부족 전체가 사냥당하고 있지 아니한가?</p>  
<p>있을 수 없는 일이다.</p>  
<p>아니,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.</p>  
<p>학살당하는 부하들을 보는 주술사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'벌레 같은 놈들, 밟아 죽여 주마!'</p>  
<p>적에게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축복을 걸어 상대하면 된다.</p>  
<p>"분노의 노래, 강화의 노래, 거인의 노래, 화룡의 노래."</p>  
<p>주무이 완성되며 주술사의 몸이 10미터에 육박할 만큼 커졌다. 근력이, 민첩이, 체력이, 자신감이 증가하며 온몸에 힘이 꽉 들어찼다.</p>  
<p>곧이어 주술사는 거대해진 팔로 그림자 병사들을 날려 버리고,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.</p>  
<p>그리고.</p>  
<p>"후우욱-!"</p>  
<p>주술사가 숨결을 토해 내자 입에서 검붉은 화염이 쏟아져 나왔다.</p>  
<p>화르르르륵!</p>  
<p>화염에 직격당한 병사들이 순식간에 증발하여 사라졌다. 스치기만 한 병사도 예외는 아니었다. 다는 아니어도 몸 일부분이 날아가 전투 불능이 됐다.</p>  
<p>화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.</p>  
<p>놈의 입에서 두 번의 불길이 연거푸 뿜어져 나왔다.</p>  
<p>연이은 공격으로 병사들의 수를 꽤 줄인 주술사가 자신감을 드러내며 목청이 터져라 포효했다.</p>  
<p>"이래도 이 카르갈간 님이 우스워보이느냐!"</p>  
<p>대답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.</p>  
<p>"어."</p>  
<p>주술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는 동시에 황급히 방어 주문을 외웠지만.</p>  
<p>하지만 진우가 한발 더 빨랐다.</p>  
<p>진우의 주먹이 놈의 정수리를 내리 찍었다.</p>  
<p>투쾅-!</p>  
<p>콰직!</p>  
<p>주술사의 머리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혔다.</p>  
<p>바닥에 거미줄처럼 금이 갔다.</p>  
<p>이미 주술사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컸던 볼칸도 주먹으로 날려 버린 경험이 있던 진우였다.</p>  
<p>[던전의 주인을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착.</p>  
<p>사뿐히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기분 좋은 메시지가 연달아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}</p>  
<p>"그렇지!"</p>  
<p>진우는 주먹을 움켜쥐었다.</p>  
<p>아까 은신으로 싸울 때 1업, 여기서 오크들을 때려잡아 1업, 그리고 방금 보스를 잡고 1업.</p>  
<p>A급 던전을 클리어하고 레벨을 세 개나 올렸다.</p>  
<p>기대 이상의 성과였다.</p>  
<p>어제, 내일도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해 준 배 팀장이 고마워졌다.</p>  
<p>'좋았어.'</p>  
<p>진우는 기쁜 마음으로 보스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버프로 몸을 키웠던 주술사는 어느새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 있었다.</p>  
<p>놈의 목걸이에 박힌 씨알 굵은 마정석이 눈에 들어 왔으나 욕심내지 않았다.</p>  
<p>'경험치를 얻은 걸로 충분하다.'</p>  
<p>여긴 헌터스의 던전.</p>  
<p>A급 던전의 마정석이 필요하면 남의 던전이 아니라 자신이 산 던전에서 구하면 되는 일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노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.</p>  
<p>바로 보스의 사체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검은 연기.</p>  
<p>꿀꺽.</p>  
<p>진우가 군침을 삼켰다.</p>  
<p>문득 레드 게이트에서 놓쳤던 바루카의 사체가 뇌리에 떠올랐다.</p>  
<p>'그때와는 다르지.'</p>  
<p>그때는 지금보다 능력치가 많이 딸렸다.</p>  
<p>놈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.</p>  
<p>기사 등급인 이그리트와 아이언의 도움을 빌려 간신히 잡았었다.</p>  
<p>하지만 이 주술사 놈은 비교적 손쉽게 잡을 수 있었다.</p>  
<p>악마성에서의 일주일.</p>  
<p>그 고된 7일의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.</p>  
<p>진우는 넘실거리는 칠흑의 증기를 향해 명령을 내렸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그와 동시에 스산한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.</p>  
<p>'됐구나!'</p>  
<p>진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.</p>  
<p>크아아아아아-!</p>  
<p>찢어지는 비명 소리와 함께 주술사의 그림자에서 로브를 뒤집어쓴 검은 마법사가 올라왔다.</p>  
<p>'어?'</p>  
<p>진우는 심상찮음을 느끼고 놈의 정보창을 확인했다.</p>  
<p>[?? Lv.1]</p>  
<p>정예 기사 등급</p>  
<p>'정예 기사?'</p>  
<p>지금까지 확인한 그림자 병사들의 등급은 세 가지가 전부였다.</p>  
<p>일반 등급.</p>  
<p>정예 등급.</p>  
<p>기사 등급.</p>  
<p>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예 기사 등급이 나왔다.</p>  
<p>기존에 있던 기사 등급에 정예라는 표현이 붙은 걸 봐선, 이그리트나 아이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병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'확실히 느껴지는 마력도 두 기사보다 강해.'</p>  
<p>과연 A급 던전의 보스로 만든 그림자 병사다웠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병사의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.]</p>  
<p>기사급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대로 이름을 부여해 달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'이름이라...'</p>  
<p>지금은 로브에 가려져 얼굴이 안 보이지만, 하이오크하면 역시 크고 긴 어금니 아닌가?</p>  
<p>'어금니로 하자.'</p>  
<p>따로 지시를 내릴 필요 없이 생각만으로 놈의 이름이 정해졌다.</p>  
<p>[어금니 Lv.1]</p>  
<p>정예 기사 등급</p>  
<p>물음표 대신 이름이 생겼다.</p>  
<p>죽기 직전까지 오만하게 굴던 주술사 놈이 들으면 기절할 만한 이름이지만, 뭐 어쩌겠어?</p>  
<p>이미 죽은 놈인데.</p>  
<p>진우는 흡족한 얼굴로 그림자 병사들을 거둬들였다.</p>  
<p>저장 가능한 그림자 수는 약 130개.</p>  
<p>나머지는 안타깝지만 전부 무(無)로 돌려보냈다.</p>  
<p>'이만하면 됐다.'</p>  
<p>웃으며 제단 아래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진우에게로 몰려들었다.</p>  
<p>공격대의 헌터들과, 차해인과, 검은 양복의 사내들.</p>  
<p>양복 사내들 중에는 아는 얼굴도 하나 있었다.</p>  
<p>'우진철 과장은 또 언제 왔대?'</p>  
<p>우진철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도 그림자 병사들을 본 모양이었다.</p>  
<p>"성진우 씨."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."</p>  
<p>"짐꾼 씨?"</p>  
<p>동시에 진우를 부른 이들이 각자 서로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어차피 힘을 숨길 이유도 없겠다, 원 없이 싸운 것까진 좋았는데...</p>  
<p>'이제 여길 어떻게 빠져나간다?'</p>  
<p>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고 뒷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